

명사로서의 정체가 아닌 동사로서 나아가야 할 때

지난 11월 5일, 총여학생회 폐지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하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500개의 서명서가 총대의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점, 대리서명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대의원회에서는 오프라인 서명서를 다시 받겠다는 공문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은 어떤 서명서가 효력을 발휘하는가가 아닙니다. 총학생회 회칙으로 그 산하에 놓이지 않은 다른 기구를 없앨 수 있는가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총여학생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현재 어느 때보다도 페미니즘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혐오는 동국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불을 지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그치게 되서는 안 됩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놓은 '여성'의 틀에 맞춰 살기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억압을 외면하며 용인하는 사회가 문제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 등의 기타 소수자 집단 역시 그들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과 억압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씌워지는 혐오프레임은 사회에 의해 형성되고, 공고해집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서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이 명백합니다. 그 안에 소속된 학생 사회 또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사회에서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까지도 '타자'들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렇듯 사회에 만연해있는 혐오는 학내사회에서도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여학생회는 학생회의 주된 역할을 '복지'에 두고 있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수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잘못된 사회전체를 개선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 필요합니다.

총여학생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은 매년, 매학기, 매 순간 존재해왔습니다. 부정하고 교묘하게 형성해온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이렇듯 강력하게 또는 폭력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억압을 일삼아 권력을 얻은 기득권들은 예의 그랬듯 소수자들의 권리 약탈을 거리낌 없이 행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들이 겨누고 있는 과녁은 총여학생회지만, 그 다음 과녁은 사회적 소수자 개인, 어쩌면 당신일 것입니다.

여성,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에 어느 때보다도 큰 반발이 일고 있다는 것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길을 개척하여 이곳으로 걸음하기까지 얼마나 많

은 투쟁이 있었습니까. 승리의 경험은 거대한 힘을 실어줄 것이며, 우리의 걸음은 권리의 쟁취에 다다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다면, 투쟁은 지난한 명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내고 당신 뒤편의 걸음을 행한다면, 투쟁은 기꺼이 당신의 세상을 바꿔줄 동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사로서의 정체를 멈추고 동사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19시 경영관 L101 여학생총회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년 제 1회 여학생총회 성사단 -여학생총회가 쏠아올릴 작은 공-

경성대 페미니즘 동아리 <파워페미레인저>, 고려대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동아대 페미니즘 소모임 <더치페미>, 부경대 페미니즘 소모임 <페니실린>, 부산대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여명>, 부산대 페미니즘 소모임 <싫다잖아>, 부산대학 페미니즘 연대체 <캠페미네트워크>, 서강대 여성주의 학회 <담다디>, 서경대 페미니즘 학회 <조짐>,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 성균관대 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이화여대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대 교지편집위원회 <녹지>, 중앙대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포항공대 여성주의 연구회 <포스텍 페미니즘>, 한국 해양대 페미니즘 소모임 <마린페미>,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